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현장 담은  
**교육!**

능력 품은  
**자격!**

기업 맞춤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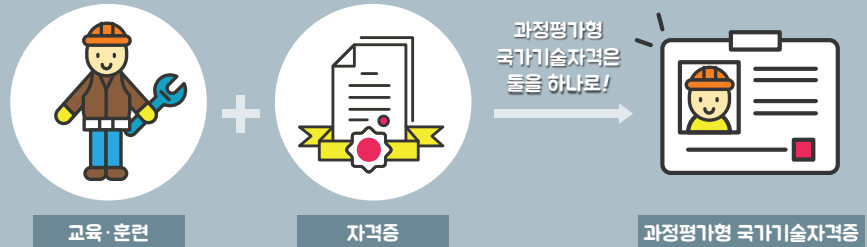
● 2018년 선정 우수사례 ●



# 진짜 능력을 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지정 교육·훈련과정과 평가를 거쳐 합격한 교육·훈련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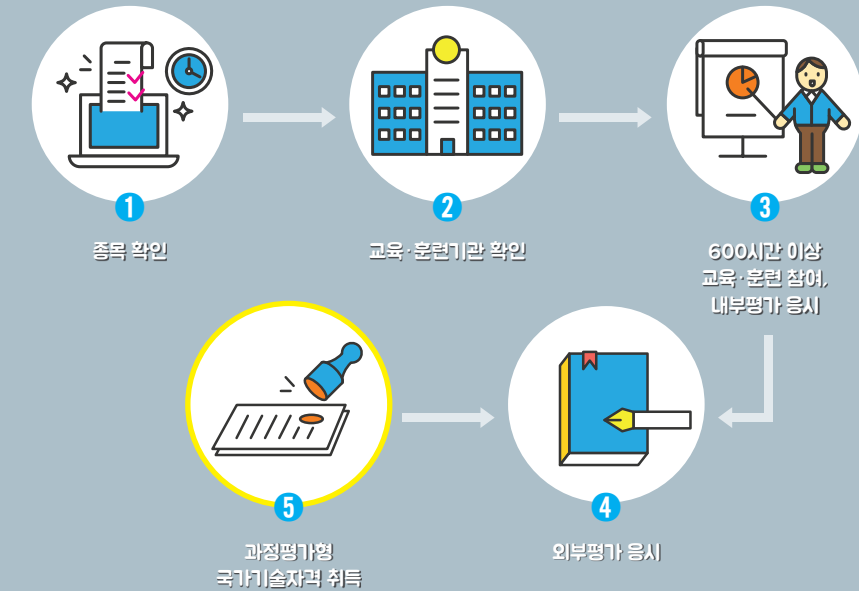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를 산업부문별·수준별로 국가가 체계화한 것.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한 목적은

'교육·훈련 따로, 자격 따로, 일 따로'라고 평가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훈련과 자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도입했습니다.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법은



- 1 산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연도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시행 종목을 선정합니다.
- 2 종목별 편성기준(시설·장비, 교육·훈련기관, NCS 능력단위 등)을 공고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교육·훈련기관을 선정합니다.
- 3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6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에 참여합니다.
- 4 이수 기준(출석률 75%, 모든 내부평가 응시)을 충족한 교육·훈련생은 외부평가에 참여합니다.
- 5 80점 이상(내부평가 50 + 외부평가 50)의 점수를 받으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 2018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111개)

기사(5종목)	산업기사(29종목)		
기계설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중식)
메카트로닉스기사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용접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의류기사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차공구설계산업기사
조경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패션머천다이징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조리산업기사(양식)	


기능사(73종목)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신발류제조기능사	전산응용도목제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압연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축로기능사
귀금속가공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축산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	양장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축량기능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연삭기능사	전자카드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응용기능사
금형기능사	염색(날업)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염색(침업)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도자기공예기능사	용접기능사	제강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미용사(네일)	원예기능사	제과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미용사(메이크업)	웹디자인기능사	제빵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미용사(일반)	이용사	제선기능사	한복기능사
미용사(피부)	일식조리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배관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조경기능사	항공관정비기능사
복어조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조주기능사	항공전자정비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종자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주조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왜 취업이 잘될까요?

### 자격증

**취득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자격증에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 기관명, 배운 능력단위가 기재되어 취득자가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채용 기업

**직무 이해도가 높은 인재 채용 가능!**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600시간 이상의 현장직무능력 중심의 교육·훈련을 받았 습니다.
-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뛰어나 재교육 비용 이 적게 듭니다.
- 원하는 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자

**현장 중심 교육·훈련과 자격 취득을 동시에!**


-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세분화된 NCS 능력단위 기반의 교육·훈련 을 통해 성취 수준 평가 및 학습 방향 설정 이 가능합니다.
- 현장 직무 적응력이 높아 취업에 유리합 니다.



###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의 명예를 걸고 우수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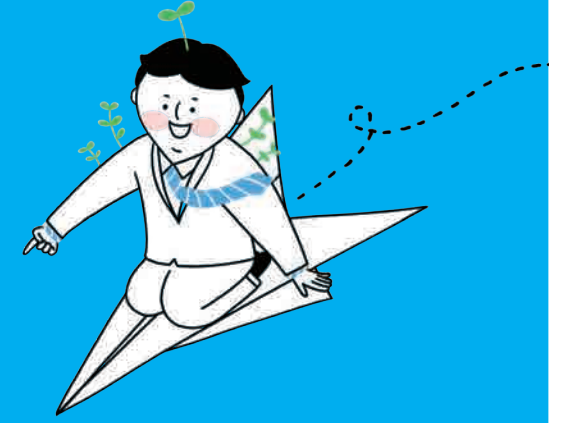
- NCS 기반으로 교과를 편성·운영하고, 현장 성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능력단위별 평가, 지속적 피드백 등으로 교육·훈련생의 학습 성취도가 매우 높습 니다.
- 자격증에 교육·훈련기관을 기재하여 기관 의 명예를 걸고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 습니다.



# CONTENTS

우수 자격 취득자  
07

- 08 **대상** 김성진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공산업기사
- 11 **금상** 김수경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시각디자인산업기사
- 15 **금상** 윤정은  
신한양직업전문학교  
웹디자인기능사
- 20 **은상** 김동현  
영진전문대학교  
기계설계산업기사
- 24 **은상** 우혜림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디지털구로캠퍼스  
제빵기능사
- 27 **은상** 임효빈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30 **동상** 강수연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정보처리산업기사
- 33 **동상** 김지연  
부산센텀직업전문학교  
웹디자인기능사
- 37 **동상** 박혜경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웹디자인기능사
- 40 **동상** 이정혜  
계명문화대학교  
미용사(일반)
- 44 **장려상** 김민주  
부산메인직업전문학교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 47 **장려상** 김호민  
영진전문대학교  
기계설계산업기사
- 50 **장려상** 신도학  
신한양직업전문학교  
기계설계기사
- 52 **장려상** 신희수  
울산직업전문학교  
기계설계산업기사
- 55 **장려상** 이홍재  
비트캠프중로학원  
정보처리산업기사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우수 자격 취득자

실무 중심  
과정운영으로  
자격취득률과  
취업률  
두 마리 토끼를  
잡다

Q&A / 문의처  
58 / 62



# 특별할 것 없는 나를 새롭게 발견하다

## [ 대상 ]

성 명 김성진  
 교육·훈련 과정 기능사과정 컴퓨터응용기계과(컴퓨터응용기계직종) 주간  
 교육·훈련 기간 2017. 03. 02 ~ 2018. 02. 09  
 교육·훈련 기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취득 종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채용 기업 영지하이테크



**학**창 시절부터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 주변에서 하는 만큼 공부했고,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저 남들도 가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대학교에 진학했다. 그렇게 당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만 쫓아다녔기에 훗날 사회에서의 나의 경쟁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사회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이자 냉정한 곳이었고,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 있는 나를 반길 만한 곳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깨어날 즈음인 20대 초중반, 내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했고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진로를 정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알게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며 내 커리어에 상당한 메리트를 줄 수 있음을 확신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할 것 없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었다.

나와 비슷한 또래로서, 선배 혹은 후배로서 내가 했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조금 특별해지리라 보장한다.



## 나의 가치는 노력한 순서대로

진로를 결정한 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한국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기능사과정에 입학했다. 교육 기간 1년 동안 내가 취득한 자격증은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기사다. 현재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은 실무 2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실무 1년 이상,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 등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잘 활용하면 1년의 시간으로도 충분히 산업기사 자격증을 손에 쥌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이런 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고,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본 과정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다. 그러나 첫 직업훈련인 만큼 모든 것이 낯설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교육생 모두가 나처럼 낯설고 어색한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이는 곧 불필요한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우리는 그것에 맞춰 성실히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교육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직무 능력을 직업기초능력부터 직무수행능력까지 체계적으로 표준화해서 직무를 처음 접하는 교육생에게 너무도 친절한 커리큘럼이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NCS 교재를 활용하는데, 이는 교육과정 중 내가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알려주며 그 수준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정을 따라가기가 수월했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심화적인 부분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실력을 키우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생의 각기 다른 수준을 고려한 집필진의 배려였으리라.

NCS 교재로 진행하는 교육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나의 실력으로 직결되었다. 물론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정 참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교육 기간 동안 교육 기관의 내부평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부평가에서 평균 8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취득할 수 있다. 나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NCS 교재를 활용, 이를 바탕으로 교육 기간 동안 과정평가형 자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렇게 나는 단 1년 만에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내게 '나만의 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경쟁력은 노력'이라 생각한다. 지필평가, 실기평가,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산업인력공단의 철저하고 까다로운 평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분명 많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남들과 다른 노력은 곧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 되어 마치 눈송이가 굴러 눈덩이가 되듯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 생각한다.

## 경쟁력은 나의 좋은 무기

'여기는 OO라는 회사인데 이력서를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우리는 XX라는 회사인데 혹시 취업하셨는지요?'

나는 자격증 칸을 가득 채운 이력서를 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았고, 기업들은 먼저 전화를 해주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게 인연이 닿은 회사가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영지하이테크'다.

입사 동기는 나를 포함해 총 3명으로 모두 같은 신입이었다. 하지만 실무에 특화되어 있는 NCS 모듈 교재로 직무 훈련을 받은 나는 유사한 업무에 금방 적응했고, 당연히 동기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다. 나와 동기 모두 현장직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2개월 만에 나는 2D, 3D

CAD와 MCT 실력을 인정받아 기술개발부로 배정되어 현재 CAM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훈련이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 노력을 잘 이끌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NCS 교재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공부머리'보다 '일머리'를 가르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듯하다. 그렇기에 산업 현장 중심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쟁력이 있는 이력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력서, 말 그대로 종이 한 장 차이다. 하지만 나의 이력서에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이 생겨 수많은 기업에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무기가 또 있을까?

### 고민보다는 시작

내가 혹시 늦은 것은 아닌지, 내 사정에 1년 동안 공부를 해도 괜찮을지 모든 것이 고민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특별할 것도 없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공부한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했고, 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문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결국 웃으며 본인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다. 다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뿐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시작할 수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이끌어줄 것이며, 결국 성공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잘난 것도, 특별할 것도 없던 나도 과정평가형 자격에 힘입어 내가 목표했던 삶으로 향하고 있다. 누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무도 잘 알기에 지금 내 눈앞에 저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오늘은 당신이 제일 젊은 날이고, 그렇기에 당신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 나에게 맞는 옷을 찾다



### [금상]

성 명 김수경  
 교육·훈련 과정 시각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7. 11 ~ 2017. 11. 27  
 교육·훈련 기관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채 용 기 업 (주)태흥



**부** 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 어릴 적부터 내가 자라온 모습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불편한 걸 누구보다 싫어해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자랐다. 무엇인가를 수집해 그것을 꾸미고 정리하는 게 재밌어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 몰래 키워왔던 디자이너의 꿈.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이 되길 바라는 부모님의 바람 때문에 나는 그 꿈을 잠시 접어두었다.

나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 행정학과에 입학했고, 어느 정도는 의무감으로 행정직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한 노트 한쪽은 매일같이 각종 사물에 대한 크로키와 스케치로 채워졌다. 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입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투명했기에 내 미래가 점점 두려웠다.



결국 그동안의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과감하게 포기했고, 1년 반 남짓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두었다. 과연 내게 어떤 옷이 가장 맞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돌이켜보면 대학 시절에 학과 팀 과제가 있을 때마다 발표용 PPT 작성을 선택 도맡았고, 친구들 생일에는 나만의 수제 편지지를 만들어 써주며 행복을 채웠다. 길거리를 다니다 예쁜 현수막,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이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한 거지? 이러한 구도는 정말 예쁘다!'라고 생각했다.

다양한 사물의 모습과 색감에 흥미를 느끼고 유심히 관찰하던 나의 적성이 20대 후반에 접어들어야, 소위 말하는 시각디자인 분야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시각디자인이라는 이름의 딱 맞는 옷을 입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디자인 전공자도 아니고, 스펙 하나



갖춘 것이 없었다. 무턱대고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기엔 준비된 것이 없었고, 디자이너로 채용될 일은 더욱 없다는 걸 알기에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포항공용센터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에서 '시각디자인전문인력 양성과정'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홍보물을 보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북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훈련과정 상세 교육 커리큘럼을 확인했다. '그래, 이건 분명 내가 답답했던 걸 풀어줄 수 있는 길일 거야!'라는 생각으로 교육 상담을 신청했다.

입학 상담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시각디자인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신설된 과정평가형 자격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각종 디자인 능력에 대한 내부평가를 받고 출석률도 좋아야 하며,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외부 필기·실기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회계 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는데, 그때와는 확실히 다르게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훈련 수강을 내심 결정했다. 부모님께 나의 결정을 허락받기 위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께 나의 꿈과 (재)이찬 경북직업전문학교의 해당 훈련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걱정과 달리 흔쾌히 나의 결정을 존중하며 '열심히 배워서 꿈을 펼쳐보라'고 응원해주셨다.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나는 내 옷의 디자인을 시작한 것 같다.

### 내 꿈을 디자인하다

부모님의 격려는 나의 첫 발걸음의 원동력이 되었고, 드디어 2017년 7월 11일 설레는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 첫 주는 디자인 분야 직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함께 해당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교육 일정을 안내받았다. 그리고 입학 상담 때 간략하게 들었던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시각디자인 직종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과 태도 등을 능력단위별로 배우고, 능력단위별 훈련에 75% 이상 참여해야 내부평가 응시가 가능하며, 교과목 수업이 끝나는 시점마다 치르는 각 능력단위에 대한 평가 내용, 일정, 평가 기준 등을 담당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통해 숙지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훈련 수강 중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졸업 후 외부평가진에 의해 치르는 필기·실기·면접시험 3단계를 거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평가 결과와 합산해 80점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와 교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NCS와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을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 기존의 직업훈련과 차별화된 훈련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시각디자이너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 능력단위란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나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는 몇 년 됐지만 시각디자인 관련 훈련은 처음이라, 외부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훈련 기간에 다양한 과제를 시뮬레이션해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열과 성을 다해 설명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더욱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

### 디자이너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다

수업을 듣기 전 단순 그래픽디자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에만 초점을 둘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시작하자 기본적인 디자인 이론은 물론,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통한 이미지 구상 같은 비주얼아이디어이션 수업을 통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디자이너의 경우 프로젝트 수행 시 꼭 필요한 리서치 분석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팀 과제 시간이 많아 실제 업무 수행 시 디자이너로서의 필요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업들이었다. 그리고 각 능력단위가 끝날 때마다 실시하는 내부평가로 이론 시험을 쳤는데, 이러한 평가를 준비하며 습득한 지식은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GTQ 포토샵, 일러스트 등 편집 디자인 관련 기술자격증과도 연계성이 있어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당 훈련과정은 '시각디자인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이 목표인 수업이었다. 하지만 이외에 관련 디자인 자격증을 수강 기간 동안 취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제공도 해주고,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다. 우수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훈련 수강이 끝날 무렵 관련 자격증을 3개 취득했고, 마지막 외부평가를 잘 마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까지 총 4개의 자격증이 생겼다. 디자인 업무 역량은 물론 디자인과 관련한 스펙 하나 없었던 내 이력서도 이제 장을 빼곡히 채우고도 다음 장을 만들 수 있었다. 매 수업마다 담당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주면 그에 맞는 콘셉트 디자인도 했다. 가령 '인천아시아게임', '아웃도어 페스티벌' 등의 주제로 콘셉트 구상하기, 프로그램을 통한 시안 제작 등 실제 업무 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 연출로 실전 능력을 다질 기회도 많았다. 꾸준한 실습으로 많은 자료가 쌓여 구직 시 디자이너에게 필수인 포트폴리오 작성에도 수월했다.

### 실전에서 더 빛나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5개월의 훈련과정이 끝나고 치르는 외부평가는 사실 첫 시행되는 시험이라 무척 긴장됐다. 하지만 막상 시험을 치러 보니 수업 중 사용된 NCS 모듈 교재를 열심히 보고 수업을 잘 들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필기·실기·면접 3단계 평가였다. 두근거리는 모든 평가가 끝나고 드디어 12월 말, 최종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합격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기뻐다. 꿈에 관해 오랫동안 방향하던 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에 내 디딘 첫발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이룬 것 같아 행복했다.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여타의 자격증과 달리 훈련 중 이수한 능력단위가 전부 나열돼 있어 하나하나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지나 온 교육 시간을 잘 따라온 내 자신이 무척이나 대견했고, 자신감 또한 충만해졌다. 선생님들은 종강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다. 디자인 계열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 취업 상담 선생님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리 작성한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수정할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특히 디자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NCS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을 통해 이론 및 실무를 배워 디자인 기반을 다졌음을 강조하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다니는 회사 면접 때도 나의 이력서를 본 사장님이 NCS 과정평가형 자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나는 수강하면서 보고 느낀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고, 비록 전공자는 아니지만 체계적인 과정평가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온 것을 긍정적으로 본 덕분에 최종 입사를 할 수 있었다. 막상 취업을 하니 수강 기간 동안 습득한 내용이 100% 실무에 적용되진 않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에서 배운 레이아웃, 색상 등 디자인 이론과 프로그램 사용 능력으로 쉽게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

현재 취업한 디자인회사 (주)태흥에서 수습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정식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 회사 책상에 늘 꽂혀 있는 수업 교재를 보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엔 자격증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실무 감각을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을 하면서 느꼈다. 만약 홀로 자격증만 따서 취업했다면 업무에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을 들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를 통한 디자인 작업을 해보면서 실무를 익힐 수 있었기에 현재 일을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만약 나처럼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고, 막상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NCS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가득 담긴 NCS 교재와 수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써준 선생님들의 열정, 체계적이고 공정한 내·외부평가로 실력 중심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



## 비로소 찾은 나만의 즐거운 '일'



### [금상]

성 명 윤정은  
 교육·훈련 과정 웹디자인기능사 양성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6. 20 ~ 2017. 11. 24  
 교육·훈련 기관 신한양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웹디자인기능사  
 채 용 기 업 DH쇼핑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취업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 이 시점, 잘 다니던 회사의 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백수의 길을 선택한 나. 이것은 단순히 백수가 됨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대학 4년간 배운 전공과 대학 졸업 후 쌓아온 내 경력에도 중점을 찍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내 나이 서른. 부모님의 걱정은 물론 나 자신조차도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회사 문을 지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유는 단지 이것뿐이었다. 일, 진짜 재미없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화려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흔한 직장인(이제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닌 취업 준비생이 될 예정)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참을성이 없거나 진정한 취업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학 졸업 후 약 6년간의 직장 생활을 들여다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판단했기에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놀고먹는 백수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왔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진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다.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은 전공을 떠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는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꿈 앞에 들뜬 마음을 안고 성실히 참여했다. 현재는 웹디자인기능사 과정 수료 및 자격증을 습득해 원하는 분야에 취업해서 차근차근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에 있다.



조상님의 덕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졸업 후 취업 운이 좋았던 나였지만 전공을 떠나 다른 일을 찾는다는 것은 평범한 30대 여성에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적은 경험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의지, 꿈에 대한 열정을 쌓아왔던 것 같다. 뒤돌아보지 말고 주춤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옴로(You Only Live Once!) 인생이 아닐까 싶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나의 장래 희망**

쇼핑몰 웹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나는 이과계열 고등학교 졸업 후 식품영양학을 전공했고, 중 고등학교의 영양사와 식품회사의 품질관리(QC)라는 직업을 종사했다. 솔직히 말하면, 딱히 흥미로운 분야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수능 점수에 맞춰 그럭저럭 관참을 것 같은 전공을 선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100% 만족할 만한 식단을 짤 수 없음에 자괴감이 들었고, 복사기로 찍어낸 듯 만들어낸 무의미한 서류 더미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는가'란 회의감만 커져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았다. 초등학교 때 글짓기 시간의 단골 주제인 '장래 희망'에 나는 '디자이너'라고 썼던 기억이 또렷이 생각난다.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토마토>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의 직업이 구두 디자이너였는데, 온갖 수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던 그녀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손재주가 좋았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디자이너라는 장래 희망을 그저 가슴 한구석에 품었다. 어린 나였지만, 예술계통의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데 말이다. 그렇다고 식품 전공을 선택한 것에 후회한다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 영양사와 품질관리란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경험해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원하는지 깊게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3개월가량 집순이 백수로 지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즐거울 수 있는 일! 바로 액세서리 쇼핑몰을 오픈하는 것이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흔한 장사가 아닌,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쇼핑몰이 나의 최종 목표가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스스로 만든 길, 나의 선택은 웹디자인기능사**

최종 목표가 생겼고, 기본 자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쇼핑몰을 오픈할 수 있다. 하지만 약간의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었던 나는, 의지는 불타올랐지만 쇼핑몰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쇼핑몰을 오픈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우선 쇼핑몰 회사에 취직해서 바닥부터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쇼핑몰은 크게 디자인, MD, 고객 관리, 배송팀으로 구분된다. 상품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 인터넷 쇼핑몰의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라 판단한 나는 이 분야로 취업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구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았다. 액세서리 쇼핑몰에 취직하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액세서리 쇼핑몰이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구인을 하는 회사는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밖에 없었다. 그래서 품목 상관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 바로 '나이'였다. 당시 내 나이는 서른한 살이었고, 30세 이하의 직원을 구하는 글을 심심찮게 보았다. 아무래도 쇼핑몰 대표 대부분이 나이가 젊기 때문인 듯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서른한 살에 신입사원이 되어 하기에, 경력이 없는 나로서는 우선 자격증을 취득해 실력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쇼핑몰 웹디자이너의 업무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편집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며, 이 부분은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웹 사이트의 추세가 반응형 웹으로 제작되고 있다. 모바일 사용이 확산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가 등장함에 따라 사용자의 디스플레이에 맞는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물론 인터넷 쇼핑몰의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지만 이미 반응형 웹으로 제작된 쇼핑몰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IT 업계의 대단한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웹의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알아본 자격증이 바로 '웹디자인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했다.

**#시험합격 #취업성공 #1+1**

전에 다니던 회사의 직장 동료에게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해 언뜻 들은 적이 있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은 물론, 교통비와 식비를 지원해준다는 프로그램이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니! 우선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했다. 나는 이미 목표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간 터라 상담 시간이 길거나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6주간 상담 기간을 거친 후 직업훈련학원을 선정해 교육 신청할 차례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살고 있는 밀양에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이 없어 부산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로 결정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출석일수를 채워야 하는데, 오전 9시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지각 처리되고, 지각 일수가 쌓이면 결석 처리가 된다. 밀양에서 부산으로 9시까지 학원에 도착하려면 무려 새벽 6시에 첫 기차를 타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했다. 그리고 약 6개월 동안 다녀야 했다. 나는 이 도전에 있어 전혀 피곤하거나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와 열정 덕분이었다. 물론 학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 편하게 다닐 수도 있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통학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금전 절약을 할 수 있는 길이었다.

2017년 6월 20일, 웹디자인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학생 수는 총 7명이었다. 우리 반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더 배우려는 학생,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른 분야로 도전하려는 나와 같은 직장인, 쇼핑몰 창업을 꿈꾸는 워킹맘으로 구성되었다. 보통 20명 내외로 한 반이 만들어지는 반면 우리 반은 인원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사와의 일대일 질의응답도 가능했다.

강의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됐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편집디자인과 HTML, CSS 등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 코딩 작업이었다. 포토샵은 몇 번 만져본 적이 있어 금방 익숙해졌지만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졌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고통이란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미적 감각과 센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초등학교 때 미술 학원을 꾸준히 다녔어야 했는데 말이다.

코딩은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다. 생전 처음 보는 언어와 기호들로 이루어져 매우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에는 다소 서툴렀던 한 남학생은 코딩을 배우면서 숨은 재능을 펼치는 에이스가 되기도 했다. 이 학생은 프로그래밍 분야로 취업을 결심한 모양이었다. 이렇게 배우고, 겪고, 실패도 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수업에 충실히 임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한 과목이 끝날 때마다 내부평가가 이루어져 대략 10번의 시험을 치러야 했고,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최종 시험인 외부평가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0일, 우리 반 7명 중 6명이 외부평가에 참여해 전원 합격했다. 나는 내부평가에서 성적 우수상을 받았지만, 외부평가에서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음을 확인했다. 최종 시험 전까지 약 2주의 시험공부를 위한 기간이 있었지만, 일찍이 취업이 된 터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취업운은 굉장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눈여겨둔 쇼핑몰에서 구인 공고를 해서 재빠르게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게 웬 행운인지, 면접을 본 당일 채용이 확정돼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 이렇게 나는 자격증 취득과 함께 취업 성공까지 원 플러스 원의 기회를 얻었다.

### #쇼핑몰 #웹디자이너

이제 내 꿈을 향한 진정한 첫발을 내디뎠다. 내가 취직한 회사는 각종 생활용품과 시즌 잡화를 판매하는 쇼핑몰이었고, 품목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다. 머플러, 장갑, 양말, 마스크, 방석, 찜질팩, 마사지기, 헬스용품, 줄넘기, 선글라스, 가방 등 정말 없는 게 없었다. 자사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주로 오픈 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디자인팀의 인원은 총 3명으로 한 명당 2개의 사이트를 담당했다. 예상대로 포토샵으로 상품페이지를 제작하는 업무가 90% 정도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매력적인 썸네일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포

토샵의 화려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쉬운 듯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웹디자이너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아직도 조금 어렵고 서투르지만 쇼핑몰 대표가 되어 있을 나를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려 열심히 살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출근하는 길이 너무나 즐겁고, 밀린 업무와 야근을 하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다니! 저 멀리 있는 꿈을 향한 방향을 알려주고,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이 프로그램에 너무나 큰 감사함을 느낀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 늦었다고 생각해서 더 신중했던 나의 길

## [은상]

성 명 김 동 현  
 교육·훈련 과정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6. 08. 01 ~ 2017. 07. 31  
 교육·훈련 기관 영진전문대학교  
 취 득 종 목 기계설계산업기사  
 채 용 기 업 ㈜대원SD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진로를 고민하다 군대에 입대했다. 전역하고 스물셋이 돼서야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계열에 입학했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친구들보다 1년이 늦다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다 보니 취업이나 자격증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 부담 속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내가 다닌 학교는 1학년 2학기에 3개의 전공 중 1개를 선택해 졸업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다. 마침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에 교수님이 기계설계전공의 기계설계 주문식교육 협약반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교육과정은 1년 동안 이루어지고 수많은 내·외부평가를 치르며, 모든 평가에 기준 이상이 돼야 해당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형에 비해 기간이 길고 평가가 많아 '혹시나 취득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란 생각과 부담으로 많은 고민이 되었다. 교수님은 자격증 준비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수업에만 충실히 임하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도전 의식이 생겼다. 학교에서 일정 기간 능력단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존 전공 내용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특히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전공 동아리 '마니피캣' 선배들의 권유와 교수님에 대한 믿음에 용기를 얻었다.



## 피부로 느낀 교육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참여한 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다. 기존 학교의 교육 시간표에서 일반 수업과 같이 진행되었고, NCS 홈페이지에서 학습 모듈과 과목당 필요한 주문식교육 교재를 활용해 실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교수님들이 산업체에 몸담았을 때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수업에 적용, 설명해준 덕에 현장실무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설계 업무를 하는 외래교수님들에게 현장감 있는 수업도 받을 수 있었다. 실무와 연관된 수업 평가 준비를 위해 내가 준비하는 설계자의 자세와 끈기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수업 방식에서 특이한 점은 교수님이 암기 위주의 외우는 방법은 절대 금지시켜서 무조건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도면 설계를 할 때는 치수공차, 기하공차, 표면거칠기 등에 대해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주셨다. 김정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의 해답지를 단순 암기하는 것인데, 교수님의 말씀대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준비하는 나는 생각과 논리를 바탕으로 도면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과정평가형 자격을 하는 반 친구들의 도면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나름의 의미와 논리성을 가진 도면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너무 신기했고, 책 없이도 도면 설계가 가능한 현재의 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재미있었다. 예컨대 교수님이 우리가 그린 설계 도면을 서로 바꿔서 보며 제품을 제작하듯 3D 모델링을 해보라고 했을 때, 내가 설계한 도면에서 실수한 부분 혹은 오류가 나왔을 때 모델링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취업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교수님의 "설계자는 항상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하며, 법을 만드는 사람 처럼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이해됐다. 그리고 교수님은 도면을 설계할 때는 자신의 얼굴과 같이 도면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서로 도면을 바꾸어 보니 비소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방과 후에는 교수님이 몇 개의 그룹을 나누어 서로 공부하게 해주셨는데, 그룹은 설계 실력별 5~6명으로 구성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하는 동안 학습하는 스터디 그룹으로 편성되었고, 약 2주에 한 번씩 스터디 그룹에 교수님이 방문해 다시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1년간의 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들었고, 학교 시험과는 별개로 거의 매주 과제와 수시 내부평가 시험에 매진해야 했다. 현장 실무 업무를 충분하게 소화하기 위해 평가자 체크 리스트 평가 방법으로 실제 도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론 교과목은 수시로 평가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처음 시작할 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반은 시험에 대해 무신경하게 될 것이고, 산업 현장에서는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도면 설계하고 업무를 하니 시험에 대해서는 생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마쳤을 때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 고비를 이겨내고 취득한 자격증

2학년 1학기가 되었을 때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살짝 고비를 겪었다. 수많은 내부평가와 이수해야 되는 교육들, 학교 시험과 취업 등 수많은 걱정에 휩싸였다. 게다가 성적도 부진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교수님 말씀과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임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기계 설계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니 실제로 필요한 산업 현장의 지식과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무언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재밌게 느껴져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 외부평가를 치르는 순간이 왔을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평가를 마쳤다. 외부평가를 받을 때도 내부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임하니 시험인지 연습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부담감이 없었다. 또한 시험을 치르는 장소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응원을 해주셔서 더욱 편안하게 임할 수 있었다. 시험 내용은 단순히 검정형처럼 기출문제은행식이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한 설계 변경과 부품 기능의 사고해석 능력 등을 요구하는 난도가 높은 시험이었지만, 학교에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 수차례의 연습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무탈하게 잘 치렀다. 얼마 후 과정평가형 자격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합격 결과가 발표됐고, 오랜 기간 준비한 고생에 대한 보답처럼 큰 선물이 되었다. 기존 검정형 자격증을 두 개 취득했지만 성취감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1년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참여한 덕에 실무 능력이 향상되었고,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좋은 과정이었다. 특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과정 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기간 동안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하는 중에 기계설계 직무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직무를 위해서는 결과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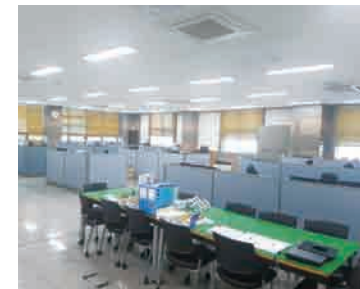
### 취업과 직장 내 업무 활용

고등학교 전공은 조립 분야였으나 대학에서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하는 동안 기계설계에 대한 직무를 충분히 이해했고, 기업에서 설계 업무를 통해 나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과정평가형 자격을 하는 중에 전문적인 설계를 하고 싶어 설계 회사의 취업을 희망했고, ‘(주)대원SD’라는 생산설비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설계 회사에 지원했다. 면접 당시 면접관이 실무에 관한 내용을 질문했을 때 학교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준비하며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대답을 잘해서 합격했다. 특히 면접관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대학의 검정형 기계설계산업기사를 취득한 기계 전공자가 있었지만, 나를 포함해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계열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친구 1명만이 입사했다.

입사를 하고 나니 기계설계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한 선배가 재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과정평가형 자격증 합격자가 실력으로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현재 연봉도 설계라는 전문직을 하다 보니 보너스도 더 많고, 어느 대기업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 지금 나는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조립 시 필요한 장비와 지그를 제작하는 설계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데이터를 확인하고 제품에 맞게 작업자가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다.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준비하면서 습득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통해 설계 업무에 빠르게 적응했으며, 현장실무교육 또한 같이 받아서 여러 방면에 적용할 수 있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올 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간담회 자리도 만들어준 덕분에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 및 취업 후 장점을 알릴 수 있었다.

전문학사 졸업 후 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진전문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계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으로 야간에 편입해 공부하고 있다. 이 또한 대한민국 전문대학 최초로 시행하는 기계설계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는 학위 과정이다. 산업체에서 설계 일을 하고 있지만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계설계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준비 중에 있다. 내년에 외부평가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많은 사람이 국가직무능력표준(NSC)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참여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 과정만 충실히 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능력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나처럼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한다.







# 제빵기능사 교육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다

## [은상]

성 명 우혜림  
 교육·훈련 과정 제빵기능사 자격취득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4.11 ~ 2017. 07. 28  
 교육·훈련 기관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디지털구로캠퍼스  
 취 득 종 목 제빵기능사  
 채 용 기 업 피비파트너즈



**제**빵기능사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수료 후 대형 프랜차이즈 제빵 매니저로 일한 지 반년이 지났다. 처음 몇 달은 매장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돌발 상황과 실패로 지치기도 했지만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은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기술, 원만한 대인관계까지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매장에 발령받아 일하면서 회사, 점주, 아르바이트생, 고객 등 다양한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산업현장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내 삶을 위한 직업을 찾고, 제빵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옳은 일일까'란 물음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던졌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을 받으면서 물음표는 확신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습득한 기술은 큰 자산이 되어 제빵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처음 접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은 담당 강사들의 자질, 경력과 노하우,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랐고, 교육에 임하는 내내 좋은 롤 모델이 되었다. 제빵 매니저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격증만 따기 위해 제한된 시간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 제빵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제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을 강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 세상에 늦은 나이는 없다

서른이 넘는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모험과 도전이다. 이전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직업으로 제빵기능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제빵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단순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듣는 것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몇 주 동안 컴퓨터 앞에서 검색을 하며 알아보던 중 4개월간 진행되는 제빵 교육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일반적으로 1~2개월 교육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업하는데,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소했지만 '현장 중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 제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으며, 특히 산업인력공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고 직접 선정한 학교여서 더욱 믿음이 갔다.

실제 교육을 듣기 전 산업현장 중심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했는데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아! 정말 튼길 잘했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내·외부평가와 더불어 대인관계 교육, 기본 지식, 기술의 반복과 습득 등의 커리큘럼이 알차게 구성되어 4개월이라는 기간이 매우 짧게 느껴졌다.

##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론수업을 듣고 제빵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배운 것을 반복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따라 지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이 배움의 과정 속에서 같은 종류의 빵 만드는 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니 '이미 장인이 된 것 같은데'라는 자만심도 생겼지만, 제빵이라는 것은 온도, 습도, 밀가루 상태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교육 안에서 어려움뿐 아니라 약간의 재미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빵을 만드는 반복 과정은 그대로지만 조별 자리가 매주 바뀌면 같은 공간이라도 위치에 따라 빵의 발효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했다면 이러한 발견을 직접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제빵을 배우는 사람은 1년 동안 4번의 계절을 다 겪어봐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짧으면서도 긴 4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봄과 여름을 겪으면서 제빵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영향이 제빵에 어떻게 미치는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취업 후 산업현장 중심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

일반적으로 매장 발령을 받기 전 2개월 남짓 실습교육은 매일 생산해야 하는 빵을 튀긴 시간에 맞춰 어떻게 잘 뽑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돌발 상황은 일반 신입 제빵 매니저가 해결하기에 난처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빵 매니저는 매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빵을 생산해야 하는데, 냉동 반죽 및 원부재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제빵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우고 자연스럽게 몸에 습득이 됐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매월 다양한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를 생산하기 위해 제빵 매니저들은 주로 동영상 시청한다. 단순히 동영상 시청만으로 제품을 생산하면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제빵 매니저가 근무하는 매장의 오븐 및 반죽의 상태, 기술의 숙련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장기간에 걸친 산업현장 중심 교육을 받았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적절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기술의 숙련도였다. 취업을 위한 2개월의 실습 기간에는 제빵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거나 단순히 자격증만 보유했거나,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던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다. 당연히 다른 교육생들보다 이해와 습득 능력이 빨랐고,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이후 새로운 환경에서 응용된 제빵을 배우는 것에 흥미도 있었다. 실습 기간이 끝날 즈음에는 중도 탈락하거나 실제 현장에 나가 제빵 매니저로 일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는 동기들도 더러 있었다.

실습 최종 평가에서 합격 후, 매장에 배치되어 업무 인수인계 담당 교육 제빵 매니저와 함께 일하면서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해서 내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칭찬을 받았다. 처음 품질평가에서도 “신입임에도 빵을 잘 뽑았다”, “경력이자 만든 빵인 줄 알았다”, “빵 성형을 잘한다” 등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했다. 실습 때 강사와의 통화에서도 “점수를 까다롭게 주기로 소문난 평가자인데 점수를 잘 받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나는 본사 전체 제빵 매니저들의 품질평가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첫 번째 받은 품질평가에서 평가자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 두 번째 평가에서 0.8점을 향상시켰다. 또한 매장 점주는 “다른 매장을 가 봐도 기사님 빵이 제일 낫다”, “빵을 잘 뽑은 덕에 품질평가 후 매장 등급이 높게 나왔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제빵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 수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제빵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과정평가형 자격 현장 중심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것이 내겐 ‘든든한 보험’이었던 것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이 많은 사람에게 홍보되어 나처럼 또 다른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면 누구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단기 교육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교육으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며, 훗날 취업해서 현장에 근무할 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교육인 만큼 중도 탈락하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교육을 통해 실현 가능한 미래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장기간 교육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시작이 늦었다 할지라도 교육 수료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과정평가형 자격 산업현장 중심 교육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



### [은상]

성 명 임효빈

교육·훈련 과정 자동화설비제어

교육·훈련 기간 2017. 03. 02 ~ 2017. 07. 24

교육·훈련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취 득 종 목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채 용 기 업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광**주에 위치한 서영대학교 자동차과를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고향인 장성의 물류센터에서 일했다. 물류센터에서는 주로 피킹 업무를 했는데, 물건을 상자에 담고 상자 위에 일렬로 쭉 이어진 받침 버튼을 누르는 작업이었다. 이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화로 진행되는 물류시스템의 업무는 굉장히 신기했다. 대학 때도 광주 기아자동차공장 생산 현장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나는 막연히 대기업 생산직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자동화 분야로 특화해 기술을 쌓으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렇게 자동화에 대한 기초와 기반을 쌓고자 직업훈련학교를 알아보았는데, 단순 검정형 자격과정이 아닌 자격 평가형 과정에 눈길이 갔다. 이는 곧 광주인력개발원으로 이어졌고, 입학의 위해 서류를 제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게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교육 기간 동안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었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물어보았다.



‘최소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기업 기술직에 반드시 취업하리라’는 굳은 각오로 광주인력개발원에 자동화 설비제어 과정에 입학했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첫날,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들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과 NCS 기반의 학습 체계 및 커리큘럼을 설명해주었다. 광주인력개발원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자동화 설비 제어 과정이어서 다른 교수님들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교육을 진행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직업훈련 학교 내부평가 50%, 인력공단 외부평가 50%를 합산해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매우 어려운 자격증임을 알게

되었다. 검정형 자격증은 60점 이상이 합격이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8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웬지 어렵게 다가왔다. 1학기 때는 주로 내부평가가 이루어졌고, 2학기 때는 외부평가가 이루어졌는데, 2학기 때 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면접시험까지 넘어야 할 단계가 너무 많았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정규 강의 시간 이외에도 아침에 1시간 일찍 나와 공부했고, 저녁에는 10시 또는 11시까지 남아 부족한 실습과목 복습과 이론과목을 꾸준히 공부했다. 교육을 들으면서, 과정평가형 자격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과목을 학습하다 보니, 기계정비산업기사나 설비보전기능사 등 여러 가지 자격증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1학기 교육 초반에는 설비보전기능사와 기계정비산업기사를 취득했고, 2학기 때는 공유압기능사, 전기기능사 등 다양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과정평가형 자격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의 과목이 많은 만큼,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검정형 자격증은 시행된 지 오래되어 이전의 과년도를 외우거나 참고해서 공부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과정평가형 자격증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격증이자 과정이기 때문에 과년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각 과목마다의 두꺼운 이론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필기 공부를 했고, 실기 또한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공부하면서 이해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학창 시절부터 마음속에 간직해온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되뇌면서 쉬는 시간이나 버스 안에서도 공부했고, 자투리 시간을 열심히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쉴 틈 없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내 적성에 맞았기 때문이다. 적성이 맞지 않거나 억지로 공부할 상황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준 덕분에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전문대를 2년 동안 다니면서 기사 자격증을 2개밖에 취득하지 못한 나는 인력개발원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3개의 산업기사와 3개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3개의 산업기사 중 원래 목표했던 '과정평가형 자격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은 내가 취득한 그 어떤 자격증보다 어려웠고, 내겐 무척 뜻깊고 애정이 가는 자격증이다. 다른 검정형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과년도 문제를 풀고 외우고 반복하다 보면 합격할 수 있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직접적으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큰 가치를 가진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10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발급되었을 때의 기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다. 자격증에는 그동안 배운 과목들에 대한 교육 이수 내역들과 과정명, 학교 등이 적혀 있었다.

**내 인생을 바꾼 '과정평가형 자격'**

수료 이후 취업을 준비했는데 '이 자격증으로 과연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 대기업에 서류를 쓰면서 곧 생각이 바뀌었다. 거의 모든 대기업 그룹은 경험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요구했는데, 10개월 동안 배운 인력개발원의 경험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세우기가 매우 수월했다. 수십 군데 서류를 넣어 합격했고, 면접 전형에서도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최종 합격한 대기업이 여러 곳이었지만 자동화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메인으로 입사했다.

SK하이닉스에 입사한 이후에도 현업에서 과정평가형 자격 생산자동화 산업기사를 취득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직접 기계를 예방 및 사후 정비하면서 로봇의 위치 값을 수정하는 서보제어를 쉽게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고, 자동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신입사원이지만 누구보다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해서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향후 꾸준히 자기 계발에 더 노력해 자동화에 있어 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친구들에게 연락이 자주 온다. 어떻게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는지, 직업전문학교를 간 것에 대해선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 혹은 후회되진 않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후회하지 않을 경험이었어!"





# 더 늦기 전에 용기 있는 실천으로!

## [ 동상 ]

성 명 강수연  
 교육·훈련 과정 정보처리산업기사 양성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6. 01 ~ 2017. 11. 02  
 교육·훈련 기관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취 득 종 목 정보처리산업기사  
 채 용 기 업 제이컴피아



**대**학 중퇴 후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생활하면서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미련이 남아 언젠가는 꼭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취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신청하고 IT 교육 관련 학원을 찾아 그중 수강생 평이 가장 좋고 교육과정이 탄탄한 서울 서초동 소재의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NCS 정보처리산업기사 양성과정'에 참여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전공자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험을 통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과정이었다.

5개월이란 시간 동안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JAVA)부터 시작해 언어를 활용한 웹서비스 프로그래밍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관리, 최종 배포에 대해 학습하고 팀 매칭을 통해 해당 교육에 대한 학습 과정을 실습했다.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팀원들과 함께하는 작업이기에 실제 프로젝트처럼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프로젝트 소스의 효율적인 형상 관리를 위해 현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을 사용해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프로젝트를 수행, 취업 준비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 실패를 딛고 자격증을 쟁취하다

교육 이수 과정 동안 프로젝트 학습 진행 외에 중간중간 평가 시험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내부평가를 치러 해당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평가 통산 점수와 출석률 등을 합산해 기준 이상이 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과정

평가형 자격 외부평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부평가는 실기시험으로 교육에 대한 학습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외부평가는 프로그래밍 언어 기초에서부터 프로젝트 배포와 빌드까지 아우르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필기시험 및 면접과 취업 후 현업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드는 실기평가로 이루어져 이전 자격시험보다 실용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이들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가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탄탄해서 쉽지 않았고, 첫 시험에서는 기준점 미달로 불합격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기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에 실패를 바탕으로 재시험을 준비했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해 3개월 후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재시험에 응시할 당시는 개발자로 취직할 후였는데, 필기시험은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었지만 실기시험의 경우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흡사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평가 방법이 취업 전후 어느 때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신입에게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교육과 프로젝트가 끝난 후 중요했던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이었다. 내 경우 대학 졸업증이나 경력기술서가 없는 신입 개발자로서의 입사지원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어떤 언어와 툴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입사 후 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협업을 해낼 수 있는지를 포트폴리오에 표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배운 언어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맡았던 역할 및 기술들에 대한 부가 설명을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에 기술했다.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당시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이어서 자격증은 빈칸으로 기재했지만, 자기소개서에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교육 이수 과정 동안 내부평가를 통과했고, 이후 외부평가 시험을 치러 자격증을 취득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해당 교육과정이 혼자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닌 협업 중심의 팀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커뮤니케이션과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가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포트폴리오나 면접에서 부각해 취업하는 데 있어 강점이 되었다. 취업 후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SI 부서의 경우 인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 회사에게 이점이 되므로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나이 많던 신입 개발자에서 솔루션 개발자가 되다

입사 후 동기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서비스직에 종사한 시간이 IT 업계에서는 늦감이 개발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취업 후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회사에서는 신입 개발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이 주어진 후 행동에 따라 평가한다.

나이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정 동안 실제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학습했기에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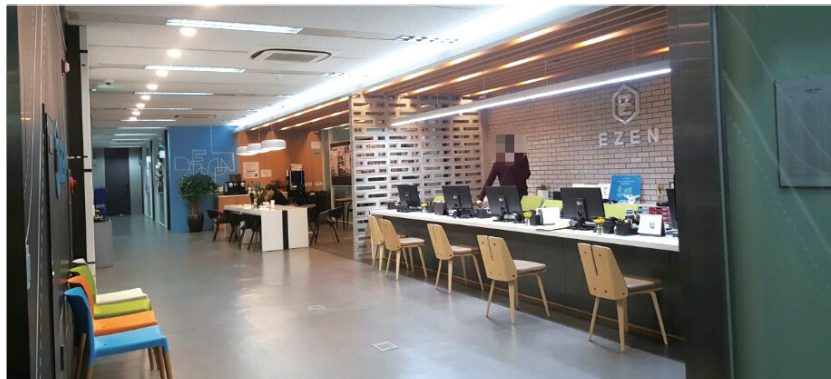


에서 했던 프로젝트와 형상 관리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포와 빌드에 대한 교육 또한 진행했기 때문에 첫 프로젝트에서 배포를 담당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그로 인해 웹 개발뿐만 아니라 서버 개발까지 경험할 수 있었고, 앞선 팀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오기를 부리기보다 선임 개발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다 빠른 해결을 통해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협업 툴을 사용해 코드에 대한 리뷰를 해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러던 와중에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통과해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프로젝트가 끝나기 전 SI 부서에서 솔루션 부서로 이동했다. 부서 이동 후에는 회사에서 연구하는 솔루션을 통한 개발을 진행했고, 첫 프로젝트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버 개발까지 담당하며 실제 서버를 설치하는 업무를 맡아 현재까지도 회사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다

나는 NCS 정보처리산업기사 양성과정을 통해 삶이 바뀌었다. 대학을 중퇴한 후로는 동기가 이 취업하는 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내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던 삶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최근에는 IT 업계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도입하고 있지만 그 장벽은 너무나 높다. 보다 많은 회사에서는 신입 개발자에게 자격증과 졸업증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5개월간의 국가지원 교육을 통해 대학에서 배워야 했던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취득할 수 없었던 자격증을 취득해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해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혹시 이 글을 보는 나와 같은 환경의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만 한다면 언젠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



## 영화기획사 창업의 꿈, 웹디자인 과정으로 날개를 달다



과정명기행 쿠팡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동상]

성 명 김지연  
교육·훈련 과정 웹디자인기능사  
교육·훈련 기간 2017. 02. 23 ~ 2017. 07. 14  
교육·훈련 기관 부산센텀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웹디자인기능사  
채 용 기 업 독수리5형제픽쳐스(창업)



오랫동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영상마케팅 일을 해오다 지난 2017년도에 부산센텀 직업학교에서 총 770시간을 거쳐 웹디자인과정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했다. 수도권은 영상의 메카인 동시에 콘텐츠의 홍수이기도 했다. 나는 쫓아가는 일만 반복하면서 그 속에 발전 없는 창작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회의감이 들어 내 직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자 고향인 부산에 잠시 내려갔다. 내가 하는 일은 스스로 창조해내고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일에 대한 전문성이었고,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정확한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 30대 중반의 나이, 직업전문학교를 찾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막연했다. 다행히 학교는 두 가지의 선택권을 주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이론,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광고콘텐츠학과, 처음으로 도입되는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학과. 당연히 나는 빠른 시간에 많은 이론을 공부하는 광고콘텐츠학과를 선택했다. 그런데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획을 하던 내가 왜 웹디자인을 들어야 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늘 반복적이고 발전 없는 장벽에 부딪혔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웹의 기초를 배우고 디자인을 깨우치는 것이 마케팅의 첫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내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

### NCS 과정, 매 순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훈련하다

나와의 싸움이면서 나를 위한 하루하루의 투자의 시간이 될 것이란 희망이 생겼다. 벼락치기 공부라 아닌 전 과정을 평가받으며 할 수 있다는 건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1분 1초도 정확해야 되는 훈련 시간까지, '이건 정말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늦을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열정 가득한 학생이 되었다.

그렇게 제2의 영화의 도시이자 고향인 부산에서 영화기획사 창업을 꿈꾸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말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루하루 검증받으며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의 기준이 되는 PPT의 재발견, 포토샵, 일러스트, 코딩까지 홍보 마케팅의 가장 기본부터 나의 기술로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뼈대를 잡지 못해 헛바퀴처럼 같은 포장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영상산업센터가 건축되고 있었다. 시에서 선별한 회사만이 입주할 수 있는 영화 전문 건물이다. 나는 그곳에서 창업의 문을, 제2의 꿈을 다시 꼭 시작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선 탄탄하고 준비된 능력을 갖춘 지원서를 준비해야 했다. 30페이지가 넘는 지원서 속에 하나의 회사를 준비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과정평가형 자격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며 인생 제2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갔다. 검증과 반복을 통해 응용하고 실무를 대비하며 실력을 쏟아부었다.

### 영화기획사 '독수리5형제픽처스' 창업

만약 웹디자인 과정평가형 자격을 듣지 않았다면 막연했던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벽을 넘듯 한 과정별로 평가를 받으며 나의 목표는 더욱 단단해졌고, 영화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을 유감없이 응용했다. 또한 본인의 소개가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770시간의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 기술자격증에 많은 가산점을 받았다. 창업이지만 그만큼 탄탄히 준비해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용기와 도전으로 절반을 시작한 나는 2018년 현재 부산영상산업센터 1006호에 '독수리5형제픽처스'의 대표로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에 부산 대표로, 부산의 영화학교를 목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함께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 훈련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을 고용해 회사 이름인 독수리 5마리의 각 캐릭터를 살렸고, 회사 자체를 콘텐츠화하기 위해 연구, 추진 중이다.

직원 고용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이 큰 도움이 되었다. 창업을 준비하기에 첫 고용 부담도 컸을뿐더러 미스 매치 채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과정을 밟으며 능력과 태도를 모두 겪었기에 합리적인 채용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함께 겪어보지 않았어도 만약 NCS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라면 나 역시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 그곳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시간을 지켜야 했던 출석을 통해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고 그것이 바로 출근과 직결될 자세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 모든 것을 NCS가 증명해주는 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서두르지 않고 나의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해왔기 때문에 목표는 현실 가능에 초점을 두었다. 능력을 벗어나는 실수는 줄이고, 한 과정 한 과정 거처온 것처럼 사업 방향 또한 과정평가형 자격처럼 '준비된 현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웹디자인 자격증 취득 후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직원들과 함께 캐릭터나 포스터를 작업하며 맡겨놓는 작업이 아닌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작업에 보람을 느낀다. 만약 다른 과정에서 이론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만을 위해 달려갔다면 직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 바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전반적인 분야에 참여 가능하기에 작은 것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창업 이래 처음 찍은 단편영화 역시 디자인의 연속이었다. 포스터를 만들고 자막을 넣고 영화 제목을 포토샵과 일러스트로 만들고, 세상 유일한 우리만의 콘텐츠로 도약 중이다.

### 과정 중심의 교육에서 일의 방향성을 찾다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욱 좋았던 것은 과정이다. 만약 단발적으로 원하는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준비했다면 딱 그 목표지만 이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정평가형 자격은 과제부터 실기까지 하나하나 평가받고 준비해가면서 이 과정들이 내가 원하는 일의 방향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응용하면서 대입이 되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코딩과정은 정말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미래 유망기술이고,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가는 시대에 영상과의 조합은 클 것이라 예상된다.

직업학교에는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았다. 영광스럽게도 수료 후 졸업한 직업학교에서 특강을 두 번 진행했다. 그럴 때마다 "수료 후에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란 질문이었다. 나는 일단 지역이 가진 특성인 정보통신, 영상, 오락, 국제 업무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복합 산업단지라는 특성을 고려해 센텀 시티 대부분의 건물 1층에 있는 게시판을 평소 열심히 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공모, 슬로건 공모, 라벨 디자인 공모,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포스터 자체도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이뤄왔던 가능성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자신의 가능성과 노력했던 도전이 보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 물론 졸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아직 기초를 더 단단하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감히 '목표는 가까이에 있다'고 전하고 싶다.

NCS 과정평가형 자격은 이미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 또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을 실무형 인재들과 함께하고 싶은 희망이 있다. 훈련과 동시에 목표가 뚜렷해지는 훈련, 현장으로 가는 지름길 NCS 과정평가형 자격이 더 많은 취업과



지역경제발전,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을 이뤄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분야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 도전만으로도 현장에 나설 충분한 용기와 실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과정평가형 자격은 혼자만의 공부라 아니었다. 나이를 불문한 학생들과 수행평가를 함께 습득하면서 서로를 평가해주고 포기하지 않게 단단한 의지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사회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싶다. 어느새 꿈에 성큼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했던가.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기본의 배움을 찾은 나는 더욱 단단한 날갯짓으로 도약 중이다



#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의 문을 활짝 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 동상 ]

성 명 박혜경  
 교육·훈련 과정 웹디자인기능사 양성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6. 15 ~ 2017. 11. 01  
 교육·훈련 기관 이젠아카데미컴퓨터학원  
 취득종목 웹디자인기능사  
 채용기업 AD-N(에드엔)



**현** 재 병의원 전문 마케팅&디자인 회사 AD-N에서 디자인팀 사원으로 일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에 참여한 계기는 국비과정을 수료하고 취업까지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다. 학벌 없이도 교육과 훈련 수료, 자격 취득만으로도 취업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정에 참여할 때 내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적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에 희망을 가지고 고용센터와 사람마중 북부지사의 상담을 통해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 실무형 국가기술자격

2017년 6월 서울북부고용센터 방문 후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했다. 사람마중 북부지사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담당자의 친절한 상담과 관리를 통해 1단계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1단계에서 진행한 적성검사와 지속적인 상담으로 2단계에서 받게 될 직업훈련 과정 프로그램 중 웹디자인기능사 양성과정을 선택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웹디자인기능사 과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평소 관심 있었던 디자인과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컸고, 이왕이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선택했다. 수료 기관 및 훈련과정을 알아보던 중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기능사를 알게 되었다. 일반 국비과정과 비교하면서 과정평가형 자격이 실무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써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훈련과정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기능사 양성과정을

모집하던 이젠컴퓨터학원에 바로 등록,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인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2017년 6월 15일을 시작으로 이젠컴퓨터학원에서 NCS 과정평가형 자격 웹디자인기능사 양성 과정을 640시간 동안 수료했다. 훈련과정 동안 2주에 한 번씩 진행한 내부평가를 통해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부담감이 있었지만 교육과정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때문에 내부평가를 치르면서 자신감이 붙었고, 외부평가에 대한 부담감도 줄었다. 웹디자인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시험 일정은 훈련과정 수료 후 한 달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학원에서 진행한 보강 수업을 통해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다. 시험은 2일간 진행되었다. 첫날은 이론시험, 둘째 날은 실기시험을 보았고 내부평가와 보강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 과정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한다. 훈련과정 동안 실무형 교육과 포트폴리오 준비 그리고 내·외부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취업성공패키지와 학원에서 진행한 취업 지원과 취업 컨설팅, 사후 관리를 통해 포기하지 않고 취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 훈련 그리고 취업

훈련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경숙 강사님이 열심히 이끌어준 덕분에 교육 수료와 자격증 취득, 취업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 훈련과정 중 진행한 상담을 통해 취업 방향까지 잡을 수 있었다. 훈련과정을 통해 웹디자인뿐만 아니라 웹표준코딩을 다루는 웹퍼블리싱 영역도 함께 배우면서 보다 흥미를 느끼고 성취감이 높았다. 그래서 취업도 웹퍼블리셔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취업 상담을 통해 웹디자이너와 웹퍼블리셔 모두 지원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통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력서를 지원한 곳은 약 60군데, 면접을 본 곳은 10군데 정도다. 스타트업회사, 웨에이전시, 광고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면접을 보았고 면접 진행 방식도 모두 달랐다. 공통 질문은 수료 기간과 내용이었다.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다. 일반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닌 과정평가형 자격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내부평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외부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임을 말씀드렸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 같다.

취업 활동이 길어지면서 많이 힘들었다. 면접을 통해 현직에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으며, 자신감을 잃지 않고 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취업의 문이 멀어진다고 생각할 즈음인 2017년 12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으로 취업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디자인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지만 퍼블리셔 영역도 작업하면서 웹표준코딩을 함께 다루고 있다. 바쁜 일정에서 퍼블리셔와 함께 동업하며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 도전을 통해 기회를 잡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신입으로 취업하면서 부담감이 컸지만 훈련과정에서 쌓아온 실력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업무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업무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지금까지 일했던 분야에서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크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교육받고 싶을 때 국비 지원을 통해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비과정은 아닌 실속 있는 자격증 취득까지 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현재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 현장 맞춤형 인재로 당당한 첫발을 내딛다

### [ 동상 ]

성 명 이 정 혜  
 교육·훈련 과정 미용사(일반)  
 교육·훈련 기간 2016. 03. 02 ~ 2017. 06. 30  
 교육·훈련 기관 계명문화대학교  
 취 득 종 목 미용사(일반)  
 채 용 기 업 펠리아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았다. 장래 희망을 물으면 으레 어린아이들이 그렇듯 선생님이나 화가 같은 꿈을 따라 적어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흐른 지금의 나는 바쁘게 돌아가는 치열한 사회의 산업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길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처음 미용을 시작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무렵이다. 미용사였던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용학원에 등록하게 된 것이 내 미용 인생의 첫걸음이었다.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 미용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정말 재미있게, 말 그대로 미쳐서 가발을 만졌던 것 같다. 덕분에 지금도 미용이 즐겁고 마냥 모발을 만지는 일이 좋다. 그렇게 미용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채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계명문화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에 입학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큰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아주 좋은 쪽으로!



### “진짜 시원해요, 수고했어요!”

취업 5개월째인 나에게 최고의 칭찬은 삼푸 시원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는, 수고했다는 말인 것 같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실기를 준비하면서 NCS 교과목 헤어삼푸 교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친구와 교대로 삼푸를 진행하며 반복 연습을 했다. 서로의 기술을 비교하며 무엇이 더 시원한지, 동작이 미숙하지는 않은지 연습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그때 삼푸 실력이 상당히 늘었다. 취업 후 떨리는 마음으로 고객을 상대했을 때 “시원했다” “고맙다”며 손님이 엄지손가락을 세워 올릴 때마다 ‘다양한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만약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친구와 기술을 주고받으며 연습하지 않았다면 떨리는 마음에

실수를 하거나 다른 기술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위축되지는 않았을까?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경험이 미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연습이 성장의 토대가 됨을 느끼며 연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현재도 살롱 오픈 전이나 마감 후 시간을 이용, 하루에 한 번씩 연습을 하고 있다. 오늘의 연습이 차곡차곡 쌓여 당당한 사회인이자 디자이너로서의 미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자신감과 보람을 선물한 값진 경험들

계명문화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헤어디자인전공에서의 수업은 NCS 교과목 능력 단위에 맞는 수행 준거에 따라 진행되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다독다독, 스터디, 튜터링, P&S 프로그램, 캡스톤 등 단순히 학업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비롯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프로젝트 진행으로 팀워크까지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나 경험도 많았다.

학생 때는 ‘혹시 드라이기 바람으로 인해 고객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 어떡하나’ 지레 겁먹고 헤어 스타일링 기구를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미숙했다. 당시 살롱에서 근무하던 언니가 스터디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님과 함께 드라이 교육을 해주었는데, 학교에서 지원한 비용으로 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롱기도 선물 받았던 기억이 난다. 함께 식사를 하며 다정하게 연습했던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헤어 스타일링을 해드리는 데 막힘없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 외에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캡스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 이는 헤어 액세서리 제작이라는 능력단위와 연결되는데, 캡스톤이란 건축물의 정점에 놓인 장식을 뜻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의 별을 생각하면 쉽다. 트리의 별과 같은 최고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기 전 헤어 액세서리 제작이라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점차 다양한 직업 계층의 고객에게 될 헤어디자이너 전공 학생들에게 헤어 액세서리 제작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열린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이 그 배경이다.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는 물론 각종 도매시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생생한 현장감도 느꼈다. 이 같은 새로운 경험은 한층 차별화된 디자이너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고, 산업 현장에서 추구하는 학생을 위한 활동이라 생각한다. 당시 결과물을 상롱과 호동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했는데,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기쁨을 느꼈다.

### 치열한 공부, 다수의 자격증 취득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다. 이용사국가자격증, 고전머리자격증, 고객상담사, SNS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 및 SMAT(서비스경영자격)와 같은 서비스 마인드와

자세를 갖추기 위한 학교의 도움이 있었다. 우리 학교는 실제 헤어 살롱 수준의 실습장을 갖추었는데,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실습을 하거나 연습을 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활동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생들과 교수님이 함께 강의실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연습했던 경험이다. 아침 9시에 강의실에 모여 시험을 대비한 특강을 진행했고, 특강이 끝난 뒤에도 밤까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필기 공부와 연습을 했던 기억은 두근두근 좋은 추억으로 남을 듯하다. 그 결과 한 명의 낙오도 없이 100% 합격률을 달성했고, 선배로서 앞으로도 후배들이 도전할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 꿀팁을 하나 주자면, 성공적인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평소 수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평소 수업을 받으며 느낀 NCS 교과목의 장점은 매 강의마다 목표의 명확성이 있었고, 확실한 반복학습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 시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군자불기(君子不器)’란 군자는 형태가 고정된 그릇과 같지 않아 모든 분야에 원만하게 적응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이 의도하는 학벌이 아닌 실력 중심의,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부합한 의미라 생각한다. 취업 전에 이력서를 가지고 면접을 보면서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대해 설명했던 기억이 난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에는 교육훈련 기관 명과 교육·훈련 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총 86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훈련 내용이 능력 단위명으로 기술돼 있는데 이는 기타 자격증과의 차이점으로 좀 더 차별화된 자기 어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이나 훈련 내용이 살롱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하니 서류상으로 인정하는 국가 공인의 스펙이 아닐까 한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의 스펙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 정말 즐겁기 위해서는 살짝 미쳐도 좋다

입사 후 5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첫 직장에서의 사회 초년생인 스물두 살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에 대한 평가가 혹평일까 아니면 호평일까? 혹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아닐까? 현재 취업처에 현장 실습을 했을 당시부터 목표는 ‘나의 빈자리가 느껴지게 하자’였다. 사실 실습 당시에는 존재감을 크게 부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내 자리를 마련했으며, 나의 빈자리가 느껴질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의 나는 일이 너무나 즐겁다.

현재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님의 말씀 중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다. 강사님은 입사 후 6년간은 정말 미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일이 너무나 즐거웠고, 특별한 슬럼프 없이 순탄했던 미용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10년 주기로 이루고 싶은 일을 계획한다는 강사님은 “계획한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니 여러분도 자세한 인생 계획을 구상해보라”고 했다. 과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하루를 꼬박 고민했던 것 같다. 결론은 ‘나를 믿자’

였다. 현재의 일이 즐거운 나를 믿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앞을 바라볼 생각이다. 5년, 10년 후 나의 모습과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항상 전성기를 갱신하는 내가 될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긴 2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면, NCS 교과목을 통한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은 내 미용 인생의 튼튼한 초석이 되어주었다. 나는 여전히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체계화된 교육과 평가 내용으로 몸과 정신이 다져진 미용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췄으며, 언젠가는 아주 눈에 띄는 미용인이 되고 싶다. 그동안 동고동락한 대학 동기들, 밤낮 지새우며 누구보다 노력해주신 교수님을 그리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계명문화대학교와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다.







# ‘도전’이라는 오션지에 긍정과 노력을 그리다

## [ 장려상 ]

성 명 김민주  
 교육·훈련 과정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6. 28 ~ 2017. 11. 24  
 교육·훈련 기관 부산메인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컴퓨터그래픽스운영기능사  
 채 용 기 업 프리랜서 음악 강사



음악밖에 모르고 살았던 지난 10년간의 생활도 앞날이 막막하긴 마찬가지였다. 프리랜서 음악 강사라는 타이틀만으로 더 이상 무엇을 생산, 발전해나가는 데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생각은 남들과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도달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거나 결함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나에게도 찾아온 것이다. 전공인 음악에 접목 가능한 다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매사 침착하고 부지런한 친구와 연락이 닿아 최근 국비과정을 통해 배우고 싶었던 교육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 수업 정보를 찾고, 한 달 동안 방문과 상담을 반복한 결과 나에게 적당한 시간과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NCS 과정 수업을 선택했다.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과 시도해본 적 없는 분야 그리고 ‘늦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조금만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보자는 다짐으로 시작한 수업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쉽지 않았다. 처음 듣는 용어들과 낯선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수료 이후에 이것으로 무엇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옳은 선택인지 다시금 걱정스러웠다. 일주일쯤 지나고 주위를 잠시 둘러보니 전혀 다른 분야에서 살아왔던 친구들과 동생들이 모두 나와 다를 것이 없었다. 아이까지 키우며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워보겠다는 언니를 보니 내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도전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처음에는 몰랐던 NCS 과정이 나라에서 나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더 꼼꼼하고 빠르게 실무에 근접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더 큰 희망을 가졌다. 아, 잘 선택했구나!



## 음악과의 접목 그리고 시험

선생님들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생각보다 다양한 진로를 제시해주었다. 일러스트, 포토샵, 3D Max를 다루면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한지,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음악과도 충분히 접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앨범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과 컬러, 콘셉트, 형태 제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로고 제작, 캐릭터 디자인, 포스터, 명함 등 정말 무궁무진한 분야였다.

거의 하루를 소진하는 과정이었기에 체력 관리도 필요했다. 프리랜서 강사로 살아오던 나에게 ‘아침형 인간’이란 다른 나라 이야기였다. 규칙적이지 않았던 생활 습관이 학원 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출석이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과제와 복습, 작품 완성에 ‘무엇 완성도는 영덩이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었기에 저녁에는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나갔다.

NCS 과정에는 두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평가형 자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가 그것이다. 간만에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이라 즐거움 반, 긴장 반이었는데 필기가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풀이 과정을 살폈다. 너무나 광범위해서 책을 들고 다니며 이동 할 때나 자기 전에 읽고 외워나갔다. 나름대로 자신 있었던 실기에서 오히려 진땀을 뺐지만 일단 완성은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진짜 문제는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이었다. 내가 학원을 다닌 2017년에 처음 생긴 과정인 데다 12월 10일 시험이 NCS 그래픽스 운용기능사가 첫 회차 시험이라는 것이었다. 오 마이 갓! 기출문제도 시험 방식도 전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에 들어가야 했다. 책을 매일 반복해서 읽고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요약, 암기했다. 필기시험 이후 면접시험이 있어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시험 당일 결과에 깜짝 놀랐다. 필기시험에서 가장 채점을 해본 결과 만점이 나왔기 때문이다. 면접시험에서는 1문제 정도 어설픈게 대답했지만 이 정도면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선생님들도 조금 놀랐다고 한다. 실기 시험은 즉석에서 주어지는 주제로 그에 적당한 캐릭터를 제작, 완성하는 과제였다. 시험 대비 때 스케치 연습과 일러스트 사용법을 잘 알려주신 선생님 덕에 시간 내에 잘 제출할 수 있었다. 시험은 무사통과! 한 과정을 통해 자격증이 2개나 생기다니! 일석이조를 해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너무 기뻐했다.

## 달라진 나, 자신감 있는 나!

시험에 합격하고 과정도 모두 수료한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첫째로 나는 여전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지만(취업 자리도 열심히 알아보는 중) 정말 다양한 작업과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관심이 있어도 참여 자격이 부족해 도전하기 어려웠던 팀 작업에 이제는 당당하게 참여할 뿐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온천천에서



빛을 발사해 거리에 캐릭터를 비추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고 센스가 넘치는 작가들과의 작업이 충만한 에너지가 되고 있다.

둘째는 나만을 위한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남들이 똑같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용할 때 나만의 유니크한 감성을 담은 케이스를 직접 제작하고, 특별한 날에는 친구들에게 선물도 가능하다. 얼마 뒤면 내가 참여한 앨범이 나오는데, 커버에 내 작품을 넣기로 했다. 예전 같으면 여기저기 디자인 회사에 의뢰했을 텐데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기술을 익히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이력서를 제출할 때 자신감이 강하게 든다는 것이다. 사실 이전에는 이런저런 자격증을 취득한 게 있어 늘 기재해왔으나 전공과는 달라서 이력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NCS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추가했더니 이력서를 제출하는 나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이력서를 받아보는 인사 담당자들의 인식도 왠지 인정하는 눈치랄까. 수료 이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포토폴리오와 함께하면 이제 도전하지 못할 회사가 없다. 당당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된 내 모습에 정말 큰 기쁨을 느끼는 요즘이다.

면접을 앞둔 회사 세 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NCS 과정을 이해하는 회사라면 언제라도 만족스러운 취직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새로운 출발, 당장이라도 실무가 가능하고 회사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업무를 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준비해준 이 과정을 친구들과 고민에 빠진 다른 선배들에게도 열심히 추천 중이다. 서른 살,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이 시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해준 NCS 과정에 다시 한 번 만족 느끼며!

#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로 믿음을 쌓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 장려상 ]

성 명 김 호 민  
교육·훈련 과정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6. 08. 01 ~ 2017. 07. 31  
교육·훈련 기관 영진전문대학교  
취 득 종 목 기계설계산업기사  
채 용 기 업 ㈜대동정공



2016년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설명회를 듣지 못해 무슨 전공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나는 1학년 1학기에 나를 챙겨주신 교수님을 찾아 상담했다. 교수님은 학교 수업을 그대로 받으면서 조금만 더 공부하면 기계설계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NCS 과정평가형 자격을 추천했다.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은 기존의 자격증과 달리 교육 이수과목, 이수시간, 교육기관 등의 기록이 남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단순히 자격 종목과 취득일만 적혀 있는 검정형 자격증보다 신빙성이 있고, 취득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욱 느껴져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현장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거듭난다는 말이 너무나 좋았다. 학교 선배들도 NCS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좋은 기업에 취업한 성공 사례도 있었고, 입학할 때부터 설계직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NCS 기반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을 선택했다.



## 자격 과정,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1학년 2학기에 NCS 과정평가형 자격을 포함한 학교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수님 말씀대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용은 비슷했기 때문에 NCS 과정평가형 자격은 따로 조금만 공부하면 큰 무리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1학년 2학기가 끝나고 방학에도 등교해 애초 계획에 따른 능력단위에 대한 NCS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을 들었다. 1년 교육과정이 너무 길어 마지막에는 조금 힘든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훗날에는 그렇게

원하던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설계직에 취업할 수 있는 등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방학에 학교를 나오면서도 기본은 좋았다. 방학 때는 학교 수업과 달리 능력단위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지고 시험은 쳤지만 큰 무리는 없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한 덕분에 2학년 1학기는 수업에 큰 지장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쌓이고 나니 2학년에 수강한 NCS 과정평가형 자격의 능력단위 수업은 1학년 때 수업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내용이 1학년 2학기과 방학 때 학습한 내용과 연결되면서 “모든 것에 힘들이지 말고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가면 된다”는 교수님 말씀처럼 NCS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자체가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수업이 재미있고 배우는 내용에 대한 흥미도 올라갔다. 과정대로 흘러가니 더욱 이해하기 쉬웠고, 취업을 해서도 내가 배운 지식을 십분 활용해 설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업 방식

2학년이 되니 취업 및 진로 문제, 학점 관리 등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다. 학점도 좋은 편이 아닌데 NCS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시험도 다가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학점과 취업 문제보다 NCS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시험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평가를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이론공부는 계속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지만, 실기공부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익숙해야 하고 시간 안에 3D 모델링과 2D 도면 작업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으로 공부했다. 물론 교수님이 실기 관련 이론적인 지식은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알려주셔서 도면 작성에서 문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 내에 CAD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상의 문제에 부딪혔다. 교수님이 편성한 소그룹 스터디 그룹을 바탕으로 실습 준비를 꾸준히 해보았다.

어느새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많이 긴장하고 걱정도 많았다.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준비한 시험이기 때문에 잘 치러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수험표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기다리는 시간에도 다른 수험자들은 공부를 했지만 나는 긴장을 푸는데 시간을 사용했다. 시험 시간이 되어 시험지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공부했던 것이 출제되어 안심됐다.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다 보니 시험 전 긴장감이 사라졌다. 문제를 다 풀고 확인까지 한 뒤 시험장을 빠져나왔다. 오후에는 면접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생각하며 시뮬레이션도 해보았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면접장에 들어가 심사위원 앞에 앉았다. 심사위원이 응시생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질문을 조금 한 다음 전공에 대한 질문을 했다. 다행히 예상한 질문이어서 최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렸다. 심사위원분들은 관련 분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며 칭찬했고, 그렇게 기분 좋게 면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은 실기시험이 진행되었다. 평소 준비를 많이 한 터라 별다른 걱정이 없었는데, 막상 시험을 본다고 생각 하니 긴장됐다. 도면을 보니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투상이 되면 모델링

하는 것은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어 마냥 여유롭게 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다 풀었으나 마지막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어 확인을 못한 채로 제출했다. 그래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했다.

취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를 치렀을 때를 회상하면, 검정형 시험보다 NCS 과정평가형 자격처럼 단계 단계를 두고 공부해 기초를 탄탄히 하고,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해 실전에 투입될 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 취업과 직장 생활에 큰 도움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대구에 있는 ㈜대동정공에 설계직 사원으로 취업했다. ㈜대동정공은 방사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같이 일하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방사기기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바꾸어 새롭게 설치될 공장에 맞게 설계를 변경, 장치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NCS 과정평가형 자격 수업을 할 때 수없이 배우고 실습한 설계 변경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제외한 기계적인 작동 원리, 조립 간의 공차 기입, 유공압의 설계 등 실무에서 쓰이는 실무 교육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회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회사에는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에 합격해 입사한 1년 선배가 있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 나 역시 취업이 성사되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NCS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크게 확대되어 실무 맞춤 교육으로서, 기업에 입사해 실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양성되었으면 좋겠다.





# 자격증 취득과 취업으로 자신감을 획득하다

## [ 장려상 ]

성 명 신도학  
 교육·훈련 과정 기계설계기사  
 교육·훈련 기간 2017. 05. 23 ~ 2017. 11. 24  
 교육·훈련 기관 신한양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기계설계기사  
 채 용 기 업 ㈜지성엔지니어링



**대** 학교 재학 중 기계설계 분야에 매력을 느껴 설계 관련 전공과목을 주로 이수했다. 그리고 졸업 후,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계설계 부문에 수차례 취업문을 두드렸지만 전공지식에 비해 설계 업무에 필요한 툴의 사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낙방했다. 어떻게 하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NCS 기반의 훈련과정을 거쳐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검정 체계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는 말에 '이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참여했다.



### 베테랑 강사들의 노하우에 교육과정 적응 완료

처음 보는 단어들, 처음 보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격 취득 여부에 반영된다는 내부평가를 치러야 했기에 교육과정 초기에는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능력단위별 교과 내용이 초심자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었던 것과 훈련기관 선생님들의 수업에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잘 녹아 있어 생각보다 빨리 교과 내용과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이 절반을 넘어선 시기에는 내부평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 오히려 즐겁게 평가에 임했다.

###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감 회복

무엇보다 '나'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찾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다. 거듭된 취업 실패에 나는 기계설계 분야에서 한 사람의 뭇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 좌절했다. 다행히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에 참여하면서 내가 기계설계를 함에 있어 무엇이 부족한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 능력단위별 내부평가를 통과할 때마다 나도 기계설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점점 되찾을 수 있었다.

면접 당시에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을 이수했다는 것 자체가 큰 강점으로 다가갔던 것 같다. NCS 기반의 능력단위를 이수했기에 기업에서도 서류에 기재된 내 능력을 여과 없이 믿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6개월간의 꾸준한 훈련 덕분에 기계설계에 필요한 툴의 숙련도가 높아져 입사 실기테스트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었다.

### 현장 실무에서 빛을 발한 훈련 경험

훈련과정에서 매일 해오던 설계 변경, 도면 작성, 요소 해석 등의 훈련 경험들이 어렵지 않게 실무에 잘 녹아들었고, 덕분에 입사 초기부터 신입사원답지 않게 업무 처리가 빠르고 정확하다는 칭찬을 듣곤 했다. 무엇보다 내가 지원한 공법기술팀은 요소 해석 툴을 이해한 뒤 응용하며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훈련과정에서 이수했던 요소 해석 관련한 이론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

기계설계자를 꿈꾸었지만 그 길을 시작조차 못했던 사람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기계설계자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안타까움을 느끼며, 주변에 취직이나 이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이 제도를 소개해주곤 한다.

기업에서는 실무에서 빨리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신입사원을 원하기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아말로 기업과 구직자가 윈윈할 수 있는 제도요, 현세대에 가장 어울리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9개월 만에 자격증 취득, 인생의 반환점을 맞다

## [ 장려상 ]

성 명 신 희 수  
 교육·훈련 과정 [NCS 기반] 기계설계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3. 20 ~ 2017. 11. 23  
 교육·훈련 기관 울산직업전문학교  
 취 득 종 목 기계설계산업기사  
 채 용 기 업 기혼엔지니어링



어 문계열 4년제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어문자격증 하나로 어떻게 취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서 자주 들르던 동네 카페 사장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사장님은 나에게 '기계설계'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직업을 추천했다. 하지만 기계설계는 절대 독학할 수 없는 분야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계설계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알게 되었다. 때마침 NCS 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기계설계산업기사반이 모집 중에 있어 바로 상담 날짜를 정한 뒤 방문했다. 그렇게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지 안내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배움과 혜택이 있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과정인 만큼 매달 소정의 훈련 지원금이 지원됐고, 나처럼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들은 식비와 교통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현장실무능력 향상 중심'의 교육과정에 매력 느껴**  
 과정평가형 자격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학력과 경력 등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과정평가형 자격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른 일반적인 학원과 달리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 '현장실무능력 향상 중심'이라는 점에서 선택했다. 자격증 취득 후 입사해도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얼마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론교육을 토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검정형시험과 달리 실무능력 향상 중심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이 기업이 진정 원하는 인재인 듯했다.

## 기초 탄탄 교육으로 비전공자도 적응 완료

9개월간의 훈련에 참가하면서 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자격교육과 도면분석, 도면검토, 체결요소설계, 동력전달요소설계, 정밀측정, 치공구설계, 2D 도면작업, 2D 도면관리, 요소공차검토, 요소부품재질선정, 치공구요소설계, 유공압요소설계, 형상모델링작업, 형상모델링검토 등의 내용을 학습했다. 또한 Auto CAD, Inventor의 사용법을 상세히 익혀 기초를 다지며 보다 나아가 이를 활용한 3D, 2D 모델링 등 설계를 배웠다. 처음 접하는 분야라 생소하고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비전공자도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짜여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무리 없이 배워나갔다.

어느덧 기계설계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땐 너무나 뿌듯했고,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게 되었다. 처음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까'란 의구심을 품기도 했지만 실무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선생님들 덕에 어리석었던 의구심을 풀 수 있었고, 꼭 해내겠다는 의지와 확신이 들었습니다.

## 단번에 합격, 다수의 자격증 취득

노력의 결실을 맺는 시험 당일, 전문대학교로 이동해 시험을 치렀다. 함께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전문대학 기계과 2년 과정을 마치고 자격이 주어져 시험에 응시한 이들이었다. 나는 한편으로 시험을 보는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 학생들을 보고 또 한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에서 2년 동안 배운 과정을 9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방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필기와 실기 모든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 산업기사 자격증을 단번에 취득했다. 더불어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와 ITQ컴퓨터 자격증, Inventor 자격증도 함께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전문적인 가르침 덕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뿌듯함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취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자격증

기계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취업의 길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었고, 생각보다 수월하게 취업할 수 있었다.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문기를, "아무나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자격증인데 어떻게 비전공자가 9개월 만에 취득했느냐"고 했다. 남들이 보기에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 자격증 취득을 나는 국가가 지원해준 덕분에 남들과는 달리 더 좋은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동차 설계를 하는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 내에서는 공법 설계를 맡았다. 입사 후 회사는 내가 비전공자임에도 자격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대감이 컸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을 토대로 역량을 발휘해 업무를 이행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 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취업



준비생에 불과했는지 모른다. 자격증취득이 내 인생의 반환점이 되었고,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자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 살아가면서 다른 직종이 아닌 기계설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며, 기계설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모든 취업 준비생에게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



# 전공의 벽을 넘어 기초 자산을 쌓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 [ 장려상 ]

성 명 이 흥재  
 교육·훈련 과정 [NCS 기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훈련 기간 2017. 02. 01 ~ 2017. 08. 02  
 교육·훈련 기관 비트캠프종로학원  
 취 득 종 목 정보처리산업기사  
 채 응 기 업 (주)이엠넷



‘문과’는 취업이 힘들다는 말이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인문의 가치가 폄  
 하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는 전공의 벽을 뛰어넘거나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도 문과 전공자가 취업을  
 힘들어하는 경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길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 나  
 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내 경험담을 통해 좋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아직은 늦지 않았다

2017년 2월, 서른한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국문학 학사로 대학을 졸업한 나는 무기력감에 빠  
 져 있었다.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한 탓이었다. 인문학도가 취업하기 힘들다는 말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있었다. 그것을 실제로 겪게 되며 실감하기까지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졸  
 업을 2년 앞둔 시기에 통계학을 복수전공하고, 1년간 휴학하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  
 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에는 실패했고, 복수전공 과정도 직업을 갖기 위한 전문 지식을 익히  
 기에는 부족했다. 방향하는 동안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직자로  
 사회에 던져졌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무기력감에 짓눌려 누워 있는 사이에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고 있었다. 졸업 전 마지막으로 지원한 기업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현재 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  
 라볼 수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았다. 재수를 하고, 공대

에서 인문대로 전공을 바꾸는 등의 오랜 방향 끝에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사회 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늦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공부한 학문인 통계학 지식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원했다. 그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프로그래밍 업종이 가장 유력했다. 상담사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통해 IT 기업에 취직할 것을 권했다. 지체 없이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선택, 교육기관에 등록했다.

### 첫 배움의 길

6개월간의 교육과정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코딩(프로그래밍)을 했다. 통계학 전공 수업에서 배운 프로그래밍에 비해 철저하게 실무 위주였다. 자바의 기초를 배운 뒤 자바 소켓 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만들기까지 2개월이 걸렸고, JSP와 서블릿을 이용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까지 2개월이 걸렸다. 4개월이 지난 뒤에는 자신감이 붙었다. 스프링(Spring) 프레임워크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약 15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고, 대부분 나와 비슷한 고민 끝에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사람들이었다. 교육장의 분위기가 학구적인 데다 모두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진지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했다.

웹 수업 시간은 하루 8시간이었지만 11시까지도 남아 코딩을 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교육 도중에도 계속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했다. 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완성하기 위해 주말에도 나와 온종일 코딩을 했다. 그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오토이 혼자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결과물은 그대로 첫 포트폴리오가 되어 서류 전형에서 내 코딩 지식과 기술을 증명해주었다.

코딩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뒤에는 다른 자격증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교육기간 중 통계학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인 ADSP(데이터 분석 준전문가)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다. 당시 코딩을 배우던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소개해주었기에 공부가 더욱 수월했다. 6개월 과정이 끝나기 전에 ADSP를 취득할 수 있었고, 이 자격증 역시 추후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 업무 자신감, 배움의 즐거움

교육과정이 끝난 뒤 교육기관과 고용지원센터에서 당시 채용을 진행하던 기업들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반년 전과는 달리 나는 IT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불합격 통보를 많이 받았지만 초조하지 않았다. 분명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역시나 1개월 뒤 보았던 면접에서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6개월간 배운 지식과 그동안 스스로 만든 결과물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고, 내가 담당할 업무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 이외에 다른 직무를 맡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개발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시기에 훌륭하게 취업했다. 이들과는 지금까지도 든든한 IT 업계 동료로서 교류하고 있다.

취업 1개월 뒤,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렀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필기는 NCS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 시험이었다.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핵심 위주였기에 어렵지 않았다. 실기는 데이터베이스와 HTML을 이용해 웹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그보다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혼자 힘으로 여러 개 만들어보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면접은 필기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 몇 가지를 하는 구두시험이었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직장에서 맡은 직무는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6개월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본 경험은 고스란히 나의 지식적 기초 자산이 돼 있었다. 첫 직장에서 처음 해보는 개발 업무가 계속 이어졌다. 쉬운 업무가 있으면 어려운 업무도 있었다. 나는 6개월간 축적한 기초 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난 1년간의 모든 업무를 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초 자산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함을 느끼지만, 예전 같은 불안감보다는 내 실력을 높이는 일에 대한 설렘이 앞서는 나날이다.

### 스스로 선택한 값진 경험

예년에 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업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고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의 경우처럼 기존 전공과는 다른 진로를 모색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각 자격증의 전공자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취업 과정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노력한 일 또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Q&A

## Q 과정평가형 자격에는 어떤 기관이 참여할 수 있나요?

- 고등학교(특성화, 마이스터)
- 대학교,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등
- 기업(기업대학, 사내훈련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 Q 교육·훈련기관에서 산업기사, 기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교육·훈련기관이라면 해당 등급의 교육·훈련 과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학력과 관계없이 교육·훈련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내부평가 및 찾아가는 외부평가 시행
-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컨설팅 지원
-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 ☞ 계좌제 훈련생 400만 원 한도에서 자비 부담 면제
  - ☞ '특화과정'으로 인정해 고용센터 훈련 상담 면제



##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매년 8-9월, 다음 연도의 종목과 지정 과정 모집 공고가 CQ-Net(<http://c.q-net.or.kr>)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확인 후 CQ-Net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Q C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과정평가형 자격 소개, 편성 기준, 교육·훈련기관 안내, 외부평가 시험 안내, 문제 원형, 과정평가형 자격 홍보 동영상 등의 정보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해당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NCS 능력단위로 자격과정이 구성되는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총 600~800시간 내외로 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며, 각 능력단위에 대한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공단 시행)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채용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는 산업현장(NCS)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현업 이해도가 뛰어나며,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강해 업무 적응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 선후배 간 멘토링을 통한 조직 분위기 제고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과 연계할 수 있나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NCS 능력단위에 따른 체계적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NCS 기반의 직무능력 중심 채용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실력 있는 인재로서의 어필이 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기재돼 있나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NCS 능력단위,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기관 등이 기재돼 있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CQ-Net 홈페이지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과정평가형 자격 소개, 교육·훈련기관 안내, 외부평가 시험 안내, 문제 원형, 상장형 자격증/수료증/확인서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 홍보 동영상 등의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 과정평가형 자격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13
서울동부지사 자격시험2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성로 32길 38	02-2024-1725
서울남부지사 자격시험2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02-6907-7193
강원지사 자격시험팀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033-248-8514
강원동부지사 자격시험팀	강원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033-650-5714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923
부산남부지사 자격시험2팀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051-620-1915
경남지사 자격시험2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055-212-7263
울산지사 자격시험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052-220-3214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56
경북지사 자격시험팀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054-840-3035
경북동부지사 자격시험팀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054-230-3253
충부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52-820-8674
경기지사 자격시험2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68	031-249-1265
경기북부지사 자격시험팀	경기 의정부시 추동로 140	031-850-9129
경기동부지사 자격시험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031-750-6224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72
전북지사 자격시험2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063-210-9281
전남지사 자격시험팀	전남 순천시 순광로 35-2	061-720-8532
전남서부지사 자격시험팀	전남 목포시 영산로 820	061-288-3327
제주지사 자격시험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2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2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25번길 1	042-580-9154
충북지사 자격시험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394번길 81	043-279-9041
충남지사 자격시험2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041-620-764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출제에 관련된 사항		1644-8000

## ● CQ-Net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

CQ-Net 홈페이지(<http://c.q-net.or.kr>)에서는

- 과정평가형 자격 관련 소식과 현황, 운영기관 정보, 홍보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직업방송TV <성공패스워드 국가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특집 방송을 통해 자격 종목별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MEMO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우수사례집

발행일 | 2018년 8월

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운영팀

Tel 052-714-8766

기획·디자인

NCCAD

Tel 02-545-3634 Fax 02-514-997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문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